어머니의 성인기 애착과 애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Maternal Adult Attachment and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on a Child's Social Competence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최 정 미

Dept. of Social Welfare, Chodang Univ.
Concurrent Prof: Choi, Jung Mi

목 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고찰
Ⅲ. 연구방법
Ⅳ. 결과 및 해석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lineate the effects of the maternal adult attachment and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on the social competence of a child. The levels of mother's education and income, as well as the maternal adult attachment and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have been chosen for the analysis. The sample subjects selected for the research include 287 pairs of fifth/sixth grade students, their mothers, and eight of the classroom teachers, all from Kwangju cit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measuring the social competence score of a child and the maternal adult attachment, 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the scores, in general, tend to be above the mean scores. Second, looking 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education/income level and affectionate child-rearing and the child's social competence level, the affectionate child-rearing and the social competence factors only show difference correlating to the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or higher, as opposed to the level of junior high and lower, the difference is significant. Third,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variables to the child's social competence indicates that affectionate child-rearing is the most significant contributing factor, followed by the mother's education, the close attachment factor, income, and the anxiety attachment factor, in that order. All in all, the variables account for 18% of the child's social competence score.

주제어(Key Words): 성인기 애착(adult attachment), 애정적 양육행동(affectionate child-rearing behavior),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I. 서 론

인간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그 사회에서 수용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점차적으로 그 사회에 적합한 구성원이 되어간다.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은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발달하게 되는데,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적응하며(Connolly & Bruner, 1974; White, 1959)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O'Malley, 1977) 내용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적응능력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설명해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아동자신의 특성이나 또래관계, 부모-자녀 관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머니와의 관계는 전생애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되고 있다. 아동기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사회적 능력의 기초가 거의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의 사회적 능력은 청년기나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문제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Maccoby & Martin, 1983; Pettit, Dodge & Brown, 1988)이 보고되고 있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하게 된다. 아동은 많은 사회적 행동 패턴을 가족에게서 배우게 되는데(Maccoby & Martin, 1983),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Ladd & Golter, 1988; MacDonald & Parke, 1984; Pettit, Dodge & Brown, 1988). Belsky(1984)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 지도나 일관성 있는 훈육, 애정적 태도 등이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높여 주고 있으며 아동의 사회적 발달이나 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육행동의 여러 차원 중에서도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가 높다고 가장 많이 보고된 변인으로서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애정적일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공인숙, 1989; Dekovic & Janssens, 1992; Hart, DeWolf, Wozniak & Burts, 1992). 이러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들 수 있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김영지, 1994; 박응임, 1988; Gottman, Gonso & Rasmussen, 1975), 애정적 양육행동을 높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애착은 성인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국내 연구들(유은희, 1991; 유은희 · 박성연, 1989; 조병은 외, 1995, 1996)에서 성인기 애착은 전생애에 걸쳐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고 있다. 전생애 발달적 견해에 의하면 초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성장 후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성인기 때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Sroufe & Waters, 1977). 이는 내적 실행모델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데 Bowlby(1982)에 따르면 어머니의 애착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은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하고 조직화하고 반응하는 거름장치를 형성한다고 한다. 즉,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나타내는 양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Bowlby(1973)에 의하면 부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상적 항상성(*representational homeostasis*)'에 가장 적게 도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와 상호작용하며 아동의 행동은 부모의 기대에 맞추도록 미묘하게 형성화된다. 그러므로 아동기 경험에 대한 부모의 개념화 유형 즉 내적 실행모델은 자신의 자녀와의 실제행동으로 바뀌어지고 결국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어머니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갖는 중요성에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연구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즉 국내에서 이루어진 애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영아와 어린 유아에 초점을 두어 연구했거나(김숙령, 1997; 박응임, 1995; 이영환, 1993; 장미자, 1998; 최해훈, 1997; 홍계옥, 1994, 1995; 홍계옥 · 최경순, 1996), 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성인기 애착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박성연, 1988; 유은희,

1991; 유은희 · 박성연, 1989; 조병은 외, 1995, 1996). 성인기 애착은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평가하거나, 부부나 애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는 2가지 접근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인기의 부모-자녀관계는 유아기나 아동기와는 다른 형태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인기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관계보다는 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외에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주로 보고되고 있는데(강수진, 1995; 김영지, 1994; 안재연, 1992; 양정선, 1997; 조병은 외, 1995; 조은영, 1996; Gottman et al, 1975) 이러한 어머니 관련 변인들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 애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을 관련 변인으로 선정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 관련 변인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 애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소득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봄으로서 아동의 건강한 사회적 능력 발달을 도모하기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과 애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에 따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과 애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소득의 영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의 고찰

1.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먼저 성인기 애착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성인기 애착이란 신체적, 정신적 안전과 보호를 위해 주관적인 잠재력을 제공하는 한사람이나 몇몇의 특정 개인과 접촉과 근접을 유지하고 추구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개인의 안정된 경향으로 이런 안정된 경향은 대인관계에서 개인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인지적-애정적-동기적 도식인 애착의 내부 실행모델에 의해 조절된다(Berman & Sperling, 1994). 이러한 성인기 애착은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형성되는 영아의 애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영아에 있어 애착체계는 영아와 애착대상간에 상호작용이 시작됨에 따라 내적 실행모델로서 발달하기 시작하고, 애착대상과 영아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경험적 과정으로서 발달하는 반면 성인에 있어, 애착은 결혼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 돌봄을 받는 측면과 돌보아주는 기능을 둘러싼 더 많은 호혜적 과정을 필요로 한다. 부부나 개인 또는 친밀한 관계의 커플은 돌봄을 받는 것과 돌보아주는 것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즉, 부모-영아간의 애착은 양육을 제공하는 부모와 양육을 받고자 하는 행동을 보이는 영아의 관계가 비교적 일방향적이라고 한다면, 성인기 애착은 양쪽 파트너 모두 돌봄을 추구하면서 돌보아주는 행동을 동시에 보이게 된다(Berman, Marcus & Berman, 1994). 따라서 청년기를 포함한 성인기에서는 근접행동 그 자체가 곧 애착의 감정이나 속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안정감을 얻는데 애착대상이 실제로 꼭 곁에 있어야 한다기 보다는 애착대상에 대한 신뢰감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정된 애착유형의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을 위해 집을 떠난 후에도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부모를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지각하고 있었으며(Kenny, 1987; Kobak & Sceery, 1988), 그들이 부모에 대해 갖는 이러한 애착감정은 복지감과 유의

적인 관계가 있었다(Greenberg, Siejel & Leitch, 1983). 같은 맥락에서 세대간의 유대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청년기나 성인기의 애착행동은 아동기의 애착과는 달리 애착감정, 부모의 의존성, 주거인접정도, 효도의무감 등의 함수관계로 이루어진다고 본다(박성연, 1988; Cicirelli, 1983).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애착(고경애, 1984; Ainsworth et al, 1978; Cassidy, 1986; Easterbrook & Lamb, 1979; Lieberman, 1977; Main et al, 1985; Paster, 1981; Sroufe, 1983; Waters, Wippman & Sroufe, 1979)이나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김영지, 1994; 노명희, 1995; 조은영, 1996; Cohn, 1990; Parks & Waters, 1989)에 대해 보고되어 왔고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살펴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애착관계를 중심으로 세대간의 애착관계의 전이와 그것의 반영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전생애적 관점에서 파악한 조병은 외(1995)의 연구에서는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는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까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관계가 전생애적으로 사회적 능력에 중요함을 보고하였다.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Kobak과 Sceery(1988)의 연구결과를 보면, 아동기의 애착이 안정적이었던 집단은 보다 자기 의존적이고 불안과 적대감 수준이 낮으며, 가족이나 주변의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애착상실집단은 자아 회복력(ego-resiliency)이 낮고 또래로부터 적대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부모 자녀간의 애착·자율성 발달은 개인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유은희, 1991; Bretherton et al, 1991; Cicirelli, 1983; Sroufe, 1985) 청년기 이후에서는 애착과 자율성이 발달할수록 청년기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았다(유은희, 1993; Cicirelli, 1983).

2.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애정, 통제, 권위, 권위주의, 과보호 및 허용의 차원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Baumrind와 Black (1967)은 3-4세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능력과 부모의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친밀감이 있고 자기 의존적이며 탐구적인 특성을 지닌 능력 있는 아동의 부모는 일관성 있고 애정적이면서도 자녀에게 적당한 통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hn (1990)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합리적이고 일관되며 신뢰롭고 애정적일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높게 평가된다고 하였다. Bate, Maslin과 Frankel(1988)은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많이 나타내고 통제와 요구행동을 적절하게 할 때 자녀의 문제행동이 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Hurlock(1978)의 연구에서는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사회화가 잘되고 상냥하며 명랑한 편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하여 부모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Baruch & Barnett, 1981; Dekovic & Janssens, 1992; Hart, DeWolf, Wozniak & Burts, 1992; Hoffman & Saltzstein, 1967; Lieberman, 1977; Pettit, Dodge & Brown, 1988; Rutherford & Mussen, 1968)은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 즉, 애정적이고 권위적이며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면서 적절히 통제를 하는 양육방법이 아동의 사회적 행동 및 사회적 능력을 키워주는 반면, 어머니의 적합하지 않은 양육행동 즉, 적대적이고 아동의 요구에 권위주의적인 통제법을 사용하거나 무시적, 또는 과보호적인 어머니들의 자녀는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능력의 기초인 사회인지적 기술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간에 이와 유사한 관계들이 보고되고 있다. 즉, 애정적, 통제적인 양육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이원영(1983)은 애정적이면서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의사소통

능력과 지적 능력이 높다고 했으며 공인숙(1989)은 아동이 부모를 애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자기지각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권일선(1995)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애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를 취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더 잘 적응했으며 과잉보호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하여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적응을 높인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송영민, 1997), 부모의 거부적 태도,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 과잉보호는 아동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숙, 1988; 유안진, 서봉연, 1982).

그리고 유안진(1983)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면 아동은 사교적, 협동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익애적이면 또래집단에 끼어 들지 못하고 협동적 태도가 부족하며, 거부적이면 비사교적이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우며, 지배적이면 허용, 수용적 방식으로 키워진 아동보다 사회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했다. 초등학생 5학년과 그들의 어머니, 담임교사 및 같은 학급의 또래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김지신(1996)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부분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애정·합리적 지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통솔력 및 도덕성 행동점수가 높은 반면 공격·방해 행동과 수줍음의 점수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아동이 권위주의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친사회적 행동, 통솔력 및 도덕적 행동점수가 낮은 반면 공격·방해 행동과 수줍음의 점수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 수용적 양육행동을 보일 때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과 관계가 있으며, 거부적이고 엄격하며 익애적 일수록 아동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소득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미숙(1982)은 위축행동 아동과 정상행동 아동간에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위축행동 경향이 덜 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어머니의 학력이 아버지의 학력보다 더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전숙자(198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능력을 창의성, 협동성, 자기 표현성으로 간주하고 가정환경변인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조사했을 때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라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로 가정의 경제수준과 어머니의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았다. 안재연(1992)은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직업선호도 및 학력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극적인 참여행동을 통해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5-6세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조은영(1996)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아동의 사회성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조병은 등(199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동기 이후의 모든 발달단계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만이 일관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4, 5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능력을 연구한 강수진(199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사회적 능력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을 연구한 양정선(199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행동 특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아동이 위축행동 집단에 분포되는 경향이 더 많았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집단에,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아동은 공격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집단에 더 분포되었다.

가정의 소득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연구와 함께 살펴보면, Gottman 등(1975)은 중류층과 하류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 인기도 관계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능력의 모든 영역에서 중류층 아동이 하류층 아동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아동일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특히 상집단과 하집단의 차가 뚜렷하다고 하였다(김영지, 1994; 박응임, 1988; 이혜영, 1986).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에게 제공되는 경험이나 자극의 질 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용주(1987)는 놀이자료,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등의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만 4, 6, 8세 아동 24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장영애(1987)의 연구에서도 가정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의의있게 예언해주는 가정환경변인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4세의 경우는 가정경제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요한 변인이었고, 6세의 경우는 어머니의 교육수준, 8세의 경우는 가정경제수준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가정의 소득이 높을 때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조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4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어머니 320쌍과 담임교사 8명(8학급)으로 하였는데, 불성실한 응답을 기재한 경우와 무응답을 제외한 287명의 자료만이 실제 분석에서 이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87)

변 인	구 분	N (%)
아 동 성 별	남 아	154 (53.7)
	여 아	133 (46.3)
아 동 학 년	5 학년	151 (52.6)
	6 학년	136 (47.4)
어머니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41 (14.3)
	고등학교 졸업	165 (57.5)
	대학교 졸업 이상	81 (28.2)
가정의 소 득	100만원 미만	39 (13.6)
	100-199만원	146 (50.9)
	200-299만원	67 (23.3)
	300만원이상	35 (12.2)

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과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고,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와 또래를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1) 성인기 애착 측정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애착을 조사하기 위하여 Collins와 Read(1990)의 도구를 기초로 하여 의존(depend), 불안(anxiety), 친밀(close)의 3요인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로 구성하여 각 요인에 6개 문항씩을 선정하였고 총 18문항으로 된 질문지를 제작하였고, 구성 문항에 대해 애착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전공자에게 안면타당도를 의뢰하였고, 수정·보완 후 어머니 8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한 후에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념적으로 분류했던 것과 같은 3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표 2〉 참조). 이 과정에서 부하량이 .30 미만인 문항은 이후 분석에서 제외되어서 총 16문항으로 된 검사도구가

<표 2>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N=80)

문항번호	회전시킨후		
	요인 1(의존)	요인 2(불안)	요인 3(친밀)
10	.65		
1	.64		
12	.63		
4	.60		
16	.56		
2	.55		
9		.83	
11		.76	
7		.71	
6		.60	
14		.46	
13			.70
3			.65
15			.63
8			.59
5			.56
고유치	2.97	2.42	1.60
전체변량	2.47	2.47	2.06

사용되었다. 각 요인 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의존(6문항)이 .68, 불안(5문항)이 .73, 친밀(5문항)이 .63으로 나타났다.

2) 애정적 양육행동 측정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이숙(1990)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애정적 양육행동을 선정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애정적 양육행동 척도(7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4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사회적 능력 측정

아동의 사회적 능력 검사도구는 Buss와 Plomin (1984), Cassidy와 Asher(1992), Cheek와 Buss(1981), Kohn과 Rosman(1972) 그리고 도현심(1994)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사회참여도 3문항, 사교성 4문항, 인기/지도력 4문항, 대인적응성 3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래평가는 교사평가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는데, 교사용에서 사용된 하위요인과 문항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학급내 동성의 명단을 주어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동성의 또래가 평가하게 하였다. 교사와 또래평가간의 상관은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능력의 신뢰도 계수(Cronbach'α)는 .88로 나타났다.

3.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통계 Package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ronbach의 α 계수, 요인분석, ANOVA,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과 애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일반적 경향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요인, 애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점수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본 결과, 애정적 양육행동(3.74), 친밀애착요인(3.48), 아동의 사회적 능력(3.48), 의존애착요인(3.08) 점수는 중간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애착요인의 점수(2.12)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어머니 관련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일반적 경향 (N=287)

변 인	평 균	(문항평균)	표준편차
의존애착요인	18.48	(3.08)	4.01
불안애착요인	10.06	(2.12)	3.46
친밀애착요인	17.40	(3.48)	2.83
애정적 양육행동	26.19	(3.74)	4.61
아동의 사회적 능력	48.78	(3.48)	6.85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점수는 중간점수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박성연 · 이숙(1990)의 연구에서 보고된 것과 거의 유사한 결과이다.

2.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에 따른 애정적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에 따른 애정적 양육행동을 살펴본 결과(<표 4> 참조),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이하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일 때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김영선, 1991; 안재연, 1992; 윤현선, 1984; 이숙, 1986; 이영주, 1990; 이희숙, 1984; 한종혜, 1980; 허은주, 1988; Jones, Rickel & Smith, 1980)과 일치한다. 가정의 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임희수(1994)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 4>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에 따른 애정적 양육행동

(N=287)

변 인	구 분	애정적 양육행동		
		M	D	F
어머니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4.32	B	4.12*
	고등학교 졸업	26.45	A	
	대학교 졸업 이상	26.64	A	
가정의 소 득	100만원 미만	24.69		1.63
	100-199만원	26.45		
	200-299만원	26.36		
	300만원 이상	26.54		

D: Duncan's * p< .05

<표 5>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N=287)

변 인	구 분	애정적 양육행동		
		M	D	F
어머니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45.68	B	8.08***
	고등학교 졸업	48.58	A	
	대학교 졸업 이상	50.78	A	
가정의 소 득	100만원 미만	48.28		0.13
	100-199만원	48.97		
	200-299만원	48.84		
	300만원 이상	48.49		

D: Duncan's *** p< .001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살펴본 결과(<표 5> 참조),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일 때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보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들(김정아, 1990; 김지신, 1996; 노명희, 1995; 조병은 외, 1995; Ford, 1982; Gesten, 1976)의 결과와 일치한다. 가정의 소득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 애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소득의 영향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제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표 6>참조)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관련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에는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애정적 양육행동(r=.29, P<.001), 어머니의 교육수준(r=.26, P<.001), 친밀애착요인(r=.18, P<.01), 불안애착요인(r=-.12, P<.05) 순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가정의 소득과 의존애

<표 6>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1. 어머니 교육수준						
2. 가정의 소득	.46***					
3. 의존애착요인	.11	.10				
4. 불안애착요인	-.02	-.11	.20***			
5. 친밀애착요인	.15*	.06	.20***	-.11		
6. 애정적 양육행동	.14*	.09	-.01	.00	.03	
7. 아동의 사회적 능력	.26***	.02	.09	-.12*	.18**	.29***

* p< .05 ** p< .01 *** p< .001

착요인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영숙, 1988; 유안진, 서봉연, 1982; Becker, 1964; Hurlock, 1978)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제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 애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stepwise방법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2.02), 잔차간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7〉 참조).

분석한 결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애정적 양육행동(PR^2=.08), 어머니의 교육수준(PR^2=.05), 친밀애착요인(PR^2=.02), 가정의 소득(PR^2=.02), 불안애착요인(PR^2=.01) 순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불안이 낮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변인들의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력은 18%였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사회적 능력이 높은 아동의 부모는 따뜻하고 반응적이며 아동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공인숙, 1989; 김상희, 1990; 이원영, 1983; Baumrind & Black, 1967; Cohn, 1990; Dekovic & Janssens, 1992; MacDonald & Park, 1984; Putallaz, 1987)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 또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강수진, 1995; 장영애, 1987; 전숙자, 1984; 조병은 외 1995; 조은영, 199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가정의 소득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김영지, 1994; 박응임, 1988; 이혜영, 1986; 장영애, 1987)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7〉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PR^2	STB(β)	F	전 체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애정적 양육행동	.08	.26	26.11***	
	어머니 교육수준	.05	.27	15.43***	R^2=.18
	친밀애착요인	.02	.13	6.87**	F=12.19***
	가정의 소득	.02	.15	4.70*	
	불안애착요인	.01	-.11	4.31*	

* p< .05 ** p< .01 *** p<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및 논의하면, 첫째,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요인, 애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점수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본 결과, 애정적 양육행동, 친밀애착요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의존애착요인 점수는 중간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애착요인의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일 때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사회적 관계에서 더 융통성있고 기술적이라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조병은 외, 1995),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보다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리자가 되고, 사회화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아동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Baumrind, 1967) 자율성을 더 많이 인정해주고, 협동적인 관계를 맺으며(Schaefer & Bayley, 1969), 자녀에게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호기심을 격려하고 실제적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이원영, 1983)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낮은 어머니보다 더 애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Brown (1979), 오순환(1991), 신경종(1993), 박명희(1988), 이숙(1988) 등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겠다.

셋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 애정적 양육행동 및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 변인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는 애정적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 친밀애착요인, 가정의 소득, 불안애착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들 변인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내외의 선행연구들(Baruch & Barnett, 1981; Dekovic & Janssens, 1992; Hart, DeWolf, Wozniak & Burts, 1992; Hoffman & Saltzstein, 1967; Lieberman, 1977; Pettit, Dodge & Brown, 1988; Rutherford & Mussen, 1968)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바, 애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 또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 그 자체의 높고 낮음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자녀에게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과 호기심을 격려하는 중류계층의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못지 않게 어머니의 교육수준 또한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가정의 소득 또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의 소득에 따라 아동에게 제공되어지는 경험이나 자극의 질 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 요인 중에서 친밀애착요인과 불안애착요인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되는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이 자녀들에게 대인관계의 모델로서 작용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해 볼 때 세대 전달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존애착요인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적당히 의존적일 때는 적응 능력이 높게 나타나지만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비의존적인 경우에는 적응에 문제가 있다는 선행연구들(Hoffman, 1984; Lewis, 1986; Moore, 1987)의 결과에 비추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친밀과 불안애착요인과 달리 의존애착요인은 그 영향을 직선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겠다. 그러나 친밀과 불안애착요인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애착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결론과 제언을 해보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는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니가 안정적인 성인기 애착 유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기분석 및 성장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청소년기를 포함한 성인기까지 넓혀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연구하여 봄으로써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강수진(1995). 아동의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고경애(1984).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권일선(1995).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김미숙(1982). 아동의 위축행동에 관한 연구.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김숙령(1997). 영유아기의 탁아경험과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과 의 관계. 아동학회지, 18(2), 5-18.

김영선(1991). 청각장애아모와 일반아모의 결혼만족도 및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김영숙(1988).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김영지(1994).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노명희(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도현심(1994). 유치원 아동 및 6학년 아동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문용주(1987). 가정환경 제변인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박명희(1988). 어머니의 양육태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박성연 ·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박응임(1988). 사회계층에 따른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_____(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송영민(1997). 어머니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순천향대 석사학위논문.

신경종(1993).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안재연(199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양정선(199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오순환(199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개념간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유안진, 서봉연(1982). 인간발달. 서울대학교 출판부.

유은희, 박성연(1989). 母子간의 애착 母의 결혼관계에 따른 아들夫婦의 결혼만족도: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7(2), 149-162.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윤현선(1984). 모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이 숙(1986).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역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4(4), 199-207.

_____(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이영주(1990). 부모의 온정, 통제 및 형제자매 환경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28(2), 107-118.

이영환(1993). 낯선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계성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이희숙(1984). 부모의 성역할 유형과 자녀양육에서의 역할 참여 및 수행도와의 관계. 이화대 석사학위논문.

이혜영(1986).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일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임희수(1994). 첫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련변인.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장미자(1998). 애착의 세대간 전이: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장영애(1987).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인과모형분석. 아동학회지, 8(2), 17-44.

전숙자(1984).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과 사회성과의 상관관계. 숭의논총, 7, 숭의여전.

조병은 외 8인(1995). 3세대를 통해서 본 모-자녀 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 전생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86-93.

조은영(1996). 어머니의 아동 양육방식이 5세 아동의 애착관계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7(1), 213-226.

최해훈(1997). 영아의 애착유형과 성인의 애착표상 유형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한종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허은주(1988). 부모의 성 및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양육행동.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홍계옥(1995).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애착 행동간의 관계.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홍계옥, 최경순(1996). 유치원 유아의 모자녀간 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101-116.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Elbaum.

Baruch, G. K. & R. C. Barnett (1981). Competence-related behaviors of preschool girl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03*, 79-103.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Pick(Eds.). *Child Psychology, 7*.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Baumrind, D. & A. E. Black (1967). Socialization practices associated with dimensions of competence in preschool boys and girls. *Child Development, 38*, 291-327.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74-175.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Berman, W. H., Marcus, L., & Berman, E. R. (1994). *Attachment in adult*. New York London: The Guilford Press. 204-231.

Berman, W. H. & Sperling, M. B. (1994). *Attachment in adult*. New York London: The Guilford Press. 3-28.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2*. Separation. New York: Basic.

_____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2nd). New York:Basic.

Brown, R. (1979). Word from the language acquisition front, Invite address for the E.P.A., Meetings.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ide, N.J. : Lo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Cassidy (1986). The ability to negotiate the environment: An aspect of infant competence as

related to quality of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7,* 331-337.

Cassidy, J. & S. R. Asher (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50-365.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Cicirelli, V. G. (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3),* 815-825.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Cohn, D. A., Cowan, P. A., Cowan, C. P., & Pearson, J. (1992). Mothers' and fathers' working models of childhood attachment relationships, parenting styles, and child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417-432.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Connolly, K. & Bruner (1974). Competence: Its nature and nursery. *The growth of competence, 3(7),* London: Academic Press.

Crowell, J. A. & Feldman, S. S. (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al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Child Development, 59,* 1273-1285.

Dekovic, M. & Janssens, J. M. A.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25-932.

Easterbrooks, M. A., Lamb, M. E. (1979).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infant competence in initial encounter with peer. *Child Development, 50,* 380-389.

Eiden, R. D., Teti, D. M. & Corns, K. M. (1995). Maternal working model of attachment, marital adjustment,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66,* 1504-1518.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Gesten, E. L. (1976). A health resource inventory: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the personal and social competence of primary-grad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5),* 775-786.

Gottman, J., Gonso, J., & Rasmussen, B. (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709-718.

Greenberg, M. T., J. M. Siejel., & C. J. Leitch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5),* 373-385.

Hart, C. H., D. M. DeWolf, P. Wozniak & D. C. Burts (1992).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yle. *Child Development, 63,* 879-892.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 170-178.

Hurlock, E. B. (1978). *Child Development*(6th.ed). McGraw Hill, Co., 496-497.

Jones, D.C., Rickel, A.U., & Smith, R.L. (1980).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and social problem-solving strategies among preschoolers. *Development Psychology, 16(3),* 241-242.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17-29.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Kohn, M. & Rosman, B. L. (1972). A social competence scale and symptom checklist for the preschool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6(3),* 430-444.

Ladd, G. W. & Golter, B. S. (1988). Parents' management of preschooler's peer relation: Is it related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09-117.

Lieberman, A. F. (197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a peer: Relations with attachment and peer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48,* 1277-1287.

Maccoby, E. E. & J. A. Martin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1-101), ed. by E.M. Hetherinton. Series ed. by P. H. Mussen. NY: Wiley.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Moore, D. (1987). Parent-adolescent separation: the construction of adulthood by late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3(2),* 298-307.

O'Malley, J. M. (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23(1),* 29-44.

Park, K. A., Waters, E. (1989). Security of attachment and preschool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0.* 1076-1281.

Paster, D. K. (1981). The quality of mother-infant attachment and its relationship to toddler's initial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6-335.

Pettit, G. S., K. A. Dodge & M. M. Brown (1988). Early experiences,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Putallaz, M.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Rutherford, E. & P. H. Mussen (1968). Generosity in nursery school boys. *Child Development, 39,* 755-765.

Schaefer, E. S. & Bayley, N. (1969). Maternal behavior and personality development, Reading in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 N.Y. : John Wiley & Sons, Inc.

Sroufe, L. A. (1983). Infant-caregiver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 In M. Perlmutter(Ed). Development and policy concerni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he Minnesota on Child Psychology 16,* 41-83, NJ: Hillsdale, Erlbaum.

_____ (1985).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caregiver relationships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14.

Sroufe, L. A. & E. Waters (1977).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Child Development, 48,* 1184-1199.

Waters, E., Wippman, J., & Sroufe, L.A. (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Two studies in construc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0,* 821-829.

White, R. W.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A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5),* 297-333.